



제주 글로벌 AI 영상 공모전
101개국 총 1185편 출품
통합대상 최호진 감독 선정
4·3·풍당패밀리 세션도 운영

‘2026 제주 글로벌 AI 영상 공모전’에서 최호진 감독의 ‘아이엠 웨이브-등대지기 로봇이야기’가 통합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제주콘텐츠진흥원은 9일 이를 포함한 수상작 23편을 발표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올해로 2회째. 브라질, 미국, 스페인, 러시아, 중국 등 101개국에서 1185편이 출품했다. 첫해인 작년(95개국 1210편)보다 출품작은 다소 줄었지만 참가국은 늘었다.

올해는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애포당 후원으로 통합대상과 3개 세션으로 나눠 수상작을 가려냈다. 통합대상 1편, 일반 세션 15편, 4·3 세션 4편, 풍당패밀리 세션 3편이다.

통합대상작인 ‘아이엠 웨이브-등대지기 로봇이야기’는 등대지기 노인에게 웨이브(WAVE)라는 AI 로봇이 대체자로 오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그렸다. 파도를 이겨내며 인간과 AI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하루를 담았다.

세션별 최우수상 작품은 총 5편이다. 일반 세션 최우수상은 ‘렌더(Render)’(황주현 감독), ‘페이퍼플래닛: 변지는 마음의 결’(홍유경 감독), ‘카르마(KHARMA)’(마르셀로 라소 감독)에게 돌아갔다. 제주4·3평화재단에서 상금 전액을 지원하는 4·3 세션 최우수상 작품은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이상목 감독)가 이름을 올렸다. 제주산 풍당패밀리 캐릭터를 활용해 공모한 세션으로 제주애포당에서 상금 전액을 지원하는 풍당패밀리 세션은 ‘색으로 세계를 풍당’(백장우 감독)이 최우수상에 뽑혔다.

수상작들은 이달 15~17일 비인공연장에서 열리는 ‘2026 제주 AI 국제필름페스티벌’에서 일반에 공개한다. 주요 수상작 감독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15일 오전 10시), 야간 상영회(16~17일 오후 7시)에서 볼 수 있다. 제주콘텐츠진흥원 누리집 참고.

전선휘기자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 연주 대장정

제주 피아니스트 김현아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
올해부터 내년 5월까지
각기 다른 주제 4회 공연
2년 전엔 쇼팽 에튀드 전곡

제주 피아니스트 김현아(사진)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라는 대장정을 펼친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 길에 오르는 등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던 그가 2024년 쇼팽 에튀드 24곡 전곡 연주에 이어 또 한 번의 도전에 나선다.

이번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 리사이틀’은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이 되는 해인 올해 시작해 내년 봄까지 네 차례 이어진다. 네 번의 시리즈에서 연주하는 피아노 소나타는 총 18곡. 각 시리즈는 서로 다른 주제와 이야기로 꾸민다.

시리즈 첫 번째 ‘나비의 꿈’은 제주 발달장애 청년 화가인 배주현의 작품 ‘나비의 군무’와 트리나 파울루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란 책에서 영감을 받았다. ‘소나타 다장조 KV 279’ 등 친숙한 모차르트 소나타를 중심으로 선곡했다. 이달 19일 오후 5시 서귀포시 팔로아트홀.

두 번째 ‘볼프강과 나네를’에

서는 제주 작곡가 이주성에게 위촉한 신작 ‘나네를의 초상’을 초연한다. 모차르트의 누이 나네를을 소재로 쓴 단약장 형태의 소나타 작품과 그와 어울리는 모차르트 소나타를 연결해 함께 연주한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했던 시대를 떠올리며 또 다른 시각으로 모차르트를 바라본다. 오는 11월 21일 오후 5시 제주시 오디토리움.

세 번째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란 제목을 달았다. 김현아 피아니스트가 가장 ‘모차르트답다’고 생각하는 네 곡의 소나타와 더불어 K.545를 바탕으로 구성된 스페셜 무대 ‘레터 투 모차르트(Letter to Mozart)’를 선보인다. 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의 내레이션, 독

백, 대화가 어우러져 한 편의 음악극처럼 모차르트의 삶과 음악을 빛낸다. 2027년 3월 13일 오후 5시 오디토리움.

마지막 네 번째는 ‘온리 더 뮤직 잇셀프(Only the Music Itself)’. 오직 모차르트의 곡으로 채워지는 무대로 공간과 음악이 만들어 내는 가장 순수한 울림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2027년 5월 15일 오후 5시 팔로아트홀.

입장권(네이버 예약) 판매 수익금 전액은 발달장애 청년 예술가 지원, 네발 어린이 돕기 후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다시 만나는 시간을 넘어 음악이 누군가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함께 나누는 여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선휘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쏙지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의 뿌리를 찾아서’= 제주 입도조의 역사를 통해 제주의 정체성과 뿌리를 조명하는 도민 강좌. 오는 11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센터 강의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여말선조 제주의 이주민과 성씨’, ‘제주 입도조의 개념과 기원, 현황, 사연’, ‘족보의 활용과 가치’, ‘묘비로 보는 조선시대 제주의 주요 성씨 및 가계 생활사’, ‘제주의 뿌리 현장 답사’ 등이다.

▷제주도문화원연합회 ‘2026 제

8회 전국한시지상백일장’=사단법인 영주읍사와 공동 주관해 영주십경 중 하나인 ‘고수목마(古藏牧馬)’를 시제로 한시를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300여 수가 출품됐다. 입상자는 장원 금용두(부산), 차상문경재(경기), 차하 이창행(제주), 참방 이응춘(대구)·전옥(서울), 가작 이종문 등 37명. 올해 말 백일장 수상작을 수록한 한시집을 발간한다.

▷서귀포시 ‘9월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이달 12일 오전 11시 서귀

포시 문화광장을 시작으로 20일 오후 6시 동흥천 힐링향토길, 24일 오후 5시 신례2리마을회관, 26일 오후 5시 김영관센터 운동장과 오후 6시 표선해수욕장으로 이어진다. 대중음악, 트로트 등 친숙한 장르를 중심으로 공연한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싱잉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10~11월 주중반(성인반, 20명 모집)과 주말반(청년반, 20명 모집)으로 나눠 운영한다. 수강생 모집은 이달 14일부터 서귀포예술의전당 누리집.



고순철의 ‘백년초’.

작가 제공

해안 사구 ‘바다 꽃자왈’ 회화로 재조명

고순철 감귤박물관서 개인전
경계적 존재 염생 식물 탐색
‘소금정원...’에 공생 시각화

그는 제주 해안 사구에서 자라는 식물 지대를 ‘바다 꽃자왈’로 명명하고 싶다고 했다.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에서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 해안 개발, 오염 등으로 그곳 역시 위기를 받아 왔지만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블루카본 자원으로 가치가 높다고 했다.

서귀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화가 고순철. 그가 소금기 품은 식물에 눈길을 둔 작품으로 개인전을 펼친다.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기획전시실.

이 전시는 ‘소금정원-경계에 사는 것들’이란 주제를 달고 해안가의 기암괴석과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염생 식물을 회화 작업으로

재조명했다. 특히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동식물들의 공생을 시각화하는 이번 작업에서 작가는 바닷가에서 채집한 조개, 전복 껍질 등을 갈아 가루로 만들고 아크릴 물감과 혼합해 쓰는 등 재료 탐구에 나섰다.

작가는 바닷가를 거닐며 마주하는 식물들의 안녕을 기원한다. 보목 해안가에 자라는 선인장도 그중 하나다. 방파제 공사로 자생 군락지가 훼손됐지만 다행히 일부가 남아 있다며 행정 당국의 관심을 바랐다. 그 마음이 ‘백년초’라는 작품에 담겼다. 이를 포함 ‘소금정원’ ‘스치다’ ‘황근’ 등 15점이 전시장에 걸린다.

그는 염생 식물을 경계적 존재라고 불렀다. 바다와 육지, 생존과 소멸의 경계에서 살아남은 염생 식물에게 염분은 독이 아닌 환경이다. 비바람, 태양과 함께 생겨나고 사라지길 반복해 온 염생 식물은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전선휘기자

서울청년비엔날레 특별전 28명 참여 제주 청유갤러리

“2026 서울청년비엔날레 특별전 초대작가전”이 제주에서 열리고 있다. 이달 4일부터 27일까지 청유갤러리(제주시 한림읍 금악로2길 2).

이번 전시는 ‘포스트-휴먼

(Post-Human)’을 주제로 인간과 기술, 자연, 사물, 다른 생명체가 맺는 새로운 관계와 공존의 가능성을 미술 작업으로 조명하는 자리다. 초대작가전 참여 작가는 28명. 회화, 설치, 복합 매체 등을 통해 인간 중심적 시각을 넘어선 존재와 관계의 문제를 탐색한 작품들이 나왔다. 전선휘기자

전세기로 떠나는 편안한 해외여행

제주직항전세기

몽골(4박5일)
출발일: 9/23



패키지

1,590,000원

몽골 노마드전통체험, 칭기스칸 마동상, 테를지 국립공원(거북바위, 아리아발 사원) 조원승마, 자이언전망대, 간단사원

제주직항전세기

중국 장가계(3박5일)
출발일: 10/8, 10/11, 10/14, 10/17



패키지

1,290,000원

보통호수(유람선포함), 천문산사+귀곡전도+유리잔도, 전신마사지, 황룡동굴, 천문호선소, 천자산 케이블카, 원가계 백룡엘리베이터, 727루, 금편계곡

제주직항전세기

베트남 다낭(3박5일)
출발일: 11/19, 12/31



패키지

1,290,000원

대성당, 67미터 해수관음상(영웅사), 미케비치, 마블 마운틴, 투번강 투어, 호이안 옛시가지관광, 바나산 (골든 브릿지, 고성체험)

제주직항전세기

필리핀 마닐라(4박5일)
출발일: 12/17, 12/21, 12/25, 12/29



패키지

1,290,000원

파상한폭포, 마일화산 보트투어+기와 스파, 마닐라 시내투어, 오카나 리조트 분수쇼

2026년도 제주직항 전세기운행 일정

중국

장가계(3박5일)

출발일(8차): 5/7, 5/10, 5/13, 5/16,

10/8, 10/11, 10/14, 10/17

연길(백두산)(3박5일)

출발일(7차): 7/20, 7/23, 7/26,

7/29, 8/1, 8/4, 8/7

몽골 울란바토르(4박5일)

출발일(8차): 6/17, 7/15, 8/5,

8/9, 8/13, 8/17, 9/23

필리핀

마닐라(4박5일)

출발일(9차): 3/28, 4/1, 4/5, 4/9, 4/13,

12/17, 12/21, 12/25, 12/29

일본

이즈모(돗토리/2박3일): 7/10

베트남

다낭(3박5일): 11/19, 12/31

공통사항

· 여행상품 가격 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 불포함내역: 부가세, 가이드 · 기사봉사료, 상급차지, 매너티, 선택관광경비, 기타개인비용 · 최소출발인원 10명기준 · 4성(준4성)이상 2인1실 · 기획여행보증보험 2억 가입, 여행자보험 2억가입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전세기 전문여행사

Tourist Information Service
여행정보서비스

T. 064)746-6900
관광사업등록번호 제주-90호 제주시 연북로 92 진원빌딩 1층

제주토박이

T. 064)742-4938
관광사업등록번호 제주-265호 제주시 신광로1길 10, 연동학산맨션 204호



▶▶ 여행정보서비스 바로가기

